

트럼프 “자국 안보 스스로 책임져야”…나토 동맹국들 반발

나토 사무총장 “미국·유럽 안보 훼손…군인 위협하게 해” 비판 바이든 “푸틴에 침공 확대 청신호 주는 끔찍하고 위험한 발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맹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최근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안보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외정책 급변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유세도중 나토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를 통해 나토 회의에서 한 나토국 정상에게 자신이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는데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오히려 적대국의 무력사용을 부추기겠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그들(나토)이 ‘돈(방위비)’을 내 나토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건가’라고 물어 ‘절대 아니다’고 답했더니 믿지 않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공격받으면 전체 회원국이 이에 대응한다는 나토의 집단안보 체제에 정면으로 반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나토 회원국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한다고 압박하면서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한 것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유럽과 미국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서면 성명에서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

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협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나토의 안보에 관한 무모한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며 “세계에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시급히 전략적 자율성을 더 발전시키고 국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그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토의 연대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엑스에 해시태그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StrongerTogether)와 함께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이 나토의 신념은 앵커리지(미국 알래스카 도시)부터 예르주름(튀르키예 도시)까지 인구 9억 5000만 명 이상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청신호를 주려고 한다”며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프랑스 LCI TV 인터뷰에서 “전에 들었던 얘기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그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나라의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기억했으나 실제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2020년에 나눈 대화였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피터 리케츠 상원의원은 X에 “트럼프는 나토가 마치 ‘국내총생산의 2% 비용을 지불하면 방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리 클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나토 동맹국간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엑스에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나토 전체를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떤 선거 운동

도 동맹의 안보를 갖고 장난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리파브스키 체코 외무장관은 “나토는 북미-유럽간 동맹과 유럽 동맹국들이 수행하는 억제·방어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방 예산을 늘리고 대부분 미국에서 비롯된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 31개 회원국은 ‘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에 합의했다. 그러나 나토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영국 등 11개국만 이를 충족했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기준에 미달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레마이네자이퉁(FAZ)은 사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그러한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확대할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가지다. 상황의 심각성에 맞춰 군사 안보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폭격에 실종자 찾는 주민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무너진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 마을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 잔해에서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와 이스라엘군(IDF)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2만7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과 13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숨졌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피란민 몰린 가자지구 라파 집중 포격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의 마지막 피란처인 최남단 도시 라파 일대를 12일(현지시간) 타격했다.

로이터통신은 팔레스타인 적신원사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날 새벽 라파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적신원사는 이스라엘이 라파를 “격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가 채팅앱으로 접촉한 현지 주민들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시간에 공격을 받기 시작해 공포에 질렸으며 일부는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지상 공격을 개시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전

했다.

주민들은 이스라엘 전투기와 전자, 선박이 공습에 참여했으며 모스크(이슬람 사원) 두 곳과 주택 여러 채가 공격받았다고 덧붙였다.

AFP는 현지의 자사 기자들이 라파 외곽에 집중 포격이 있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사상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최소 수십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

AFP에 따르면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보건부 관계자를 인용해 팔레스타인

인 최소 3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시신 중 20구는 쿠웨이트 병원, 12구는 유러피안 병원, 5구는 아부 유세프 알 나자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가자지구 남부에 “일련의 공격”을 했으며 현재 “완료됐다”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별도 성명을 내고 라파에서 특수 작전을 펼쳐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 기습공격 때 납치됐던 인질 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사관계 모범’ 독일… ‘동투’ 파업 줄이어

(겨울 투쟁)

의료보조원노조, 첫 전국 파업 항공·대중교통 운전자 등 합류

대화와 협력 우선의 모범적 노사관계로 이름난 독일이 최근 잇따르는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철도기관사를 시작으로 전국 공항 보안검색 직원과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지상직, 버스·지하철·트램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속속 ‘동투’(겨울 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철도기관사노조(GDL)는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더 파업했다. 그중 한 차례는 닷새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지난 8일(현지시간)은 치기공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보조원노조(VMF)가 설립 61년 만에 첫 전국 단위 파업을 했다.

현지 언론이 달력에 파업이 벌어질 날을 표시하며 “독일이 파업 열병을 앓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경영계는 “나홀로 경기침체”에 빠진 터에 파업이 독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

독일 사회과학연구소(WSI) 보고서를 보면 2022년 파업으로 인한 전체 근무손실 일수는 67만 4000일로, 금속·전기 부문이 대규모로 파업한 2018년(103만 3000일) 이후 가장 많았다. 팬데믹 첫째인 2020년 34만 2000일에 비하면 2배에 육박한다.

지난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철도와 근거리 대중교통, 항공, 해운 부문 노조가 31년 만에 연대파업을 했다.

올해도 이미 상당수 공공 부문 노조가 파업한

데다 건설·화학·금융 등 분야 1200만명이 적용받는 단체교섭이 예정돼 고강도 투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사 입장 차이가 첨예해지면서 노조에 새로 가입하는 노동자도 늘고 있다.

유럽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조(IG메탈)와 공공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 등이 속한 독일노조총연맹(DGB) 조합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567만명을 기록,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1년 새 늘어난 조합원 수는 2만 2000명 정도지만 탈퇴·사망을 제외한 신규 조합원은 43만 70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이후 고금리·인플레이션이 노동투쟁 강도를 높였다고 분석한다. 독일경제의 고질병이 된 인력부족도 한 몫한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2020년 대비 16.7% 올랐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WSI 연구원 토르스텐 슐텐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임금이 2016년 수준”이라며 “올해는 파업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단체교섭 중인 노조 대부분이 10% 넘는 임금 인상에 수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일시금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한다.

독일 헌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집회·결사의 자유와 맞먹는 권리로 규정하고 경찰력 투입 등으로 제지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한국처럼 파업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다만 프랑스처럼 연금개혁 반대 등 노동조건 이외 목적을 내건 ‘정치파업’은 금지된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